

## 선(善)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자.

There are two ways of spreading light—to be the candle or the mirror that reflects it. (Edith Wharton)  
빛을 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양초가 되거나 그것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디스 워튼)

언젠가 한 코미디언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 뉴스를 보지 말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는 것은 정신 및 육체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웃음을 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라고 한 것이지요. 코미디언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상당히 과학적이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잠이 들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은 잠재의식이 우리의 정신과 몸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작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라고 할 소식들로 온통 도배하곤 합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

립, 운영하였다 하고, 서울의 유명한(?) 어느 보육원에서는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고 하고, 어떤 구의원은 어린이집을 여럿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면서 어린이들의 식대 및 공금 수역 원을 착복했다 하고, 어느 고등학생은 패륜 동영상으로 일약 인터넷의 스타(?)가 되었다 하고,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서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2013년 5월 28일에 제가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렇게 삭막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보든 말든 상관치 않으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회를 환하게 살만한 곳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양초가 되어 빛을 내기도 하고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선(善)을 실천하고,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있어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